

# LIVINLUCE

LivinLuce EnerMotive 2009 를 다녀와서...

# ENERMOTIVE 2009

LivinLuce EnerMotive 2009 (밀라노전자조명박람회)가 Fiera Milano에서 Fiera Milano Tech. S.P.A 주최로 600여개 업체 40,000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5월 26일부터 5일간 개최되었다.

국내광관련업체 참가는 한국관 8개사, 개별부스 5개사로 총13개사가 참가하였으며, 상담실적으로는 상담건수 426건, 상담액 16,800천불로 이중 계약은 13건으로 1,330천불을 성사시켰다.

※ 참고 : 지난 3월 미국샌디에고 OFC보다 수출상담 실적이 3배 수준으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림.

밀라노전자조명박람회는 실내건축조명 부문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가치있는 전시회로 올해 조명기구 디자인 트렌드가 새롭게 등장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또한 전시기간 중 개최되는 각종 조명 이벤트들도 기대를 갖는 부분중 하나이다. 올해 부대행사는 Innovation and Design Awards, 도시경관 및 안전 조명관련행사 등이 제공되었다. 아울러 주 전시품목은 Lighting, Components, Home & Building Automation 등으로 단순한 조명전시회가 아니라 세계 최고수준의 디자인과 품질을 지닌 최신 조명기구들이 선을 보였다.

올해 전시회는 같은 기간동안 인근 프랑스 리옹에서 빛축제 관련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오스람 등 주요 라이팅 업체의 참가가 분산되었다. 중국은 전시회 주최자 Fiera S.P.A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110여개업체가 국가관 형태로 대거 참가하였다. 전시장에는 밀라노시의 주관으로 48명의 디자이너 및 디자인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전시장 중앙에 "Urban Solution"이라는 도시경관조성 프로젝트존을 구성하여 밀라노의 미래 도시 경관조명 설계방향을 제시해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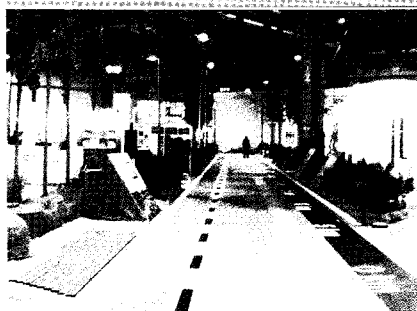
# LIVINLUCE ENERMOTIVE 2009



▶ "Urban Solution" 도시경관조성 프로젝트준 I



▼ "Urban Solution" 도시경관조성 프로젝트준 II



LivinLuce 전시회에 전시된 LED 제품 대부분은 국내 생산 제품의 기술수준이나 디자인 등이 비슷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개발된 기술력 좋은 조명제품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업체들이 기술보다는 저가 형태로 시장 지향적인 제품들을 전시함에 따라, 실제 구매자들로부터 우리 제품이 비싸다는 평을 들었다.

이는 국내와 달리 이탈리아 시장은 관공서보다 일반 소비자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이 우선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는 면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나라별 조명 기준이 달라서 보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기술은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 ▶ 우리나라 조명기준 : 1W/70lm이상(KS 준비 중)
- ▶ 이탈리아 조명기준 : 1W/90lm이상(이태리 바이어 상담)

가로등 분야는 이미 국내시장에서 많은 업체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전시회를 방문한 다수의 해외 바이어들이 디자인은 우수하나, 현장설치에 따른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관 참가업체 H사의 경우, 기존 가로등 시설 (등주, Housing 등)을 그대로 사용가능하며 기술적으로 매우 앞서가는 독보적인 LED가로등 제품을 이미 개발 완료하여 실제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LED가로등 기술이 경쟁국가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시장성이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밀라노 조명 박람회는 주최자 측으로부터 우리나라 바이어 2명이 초청되어 수출상담회에 참여토록 하였다. 이는 우리 업체가 최초로 해외 유명전시회의 공식 바이어로 초청된 쾌거로서 국내시장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